



<11월호>

월간 서신원

제 22호(Vol.2-11)
발행인: 권호덕 총장
편집인: 장석조 교수
발행소: 서울성경신학
대학원대학교
발행일: 2016 10 15



개혁주의 신학과 분야주권 사상

권호덕 총장

보수주의 신학은 반드시 개혁주의 신학인가? 이런 질문은 한국보수교회들에게 심각하게 제기해야 될 문제로 여겨진다. 한국교회 여러 보수교단들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 개혁신학의 특성들과 거리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보수교단들이 그 원래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것을 보고 있다. 사실 이들은 진리보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기독교를 보수(保守)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옹호하는 신학에 대한 반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신학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학적인 반성이 없으면 교회는 결국 인간중심의 풍토를 이룬다는 것이 교회역사의 가르침이다.

또 하나의 질문은 곧 개혁주의 신학은 보수신학인가? 개혁신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수하며 성경을 연구하여 감추어진 진리를 발굴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영위한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신학은 바로 이것이다. 개혁교회는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그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문제를 개혁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개혁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역 주권’을 강조하는데 있다. 화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설립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가 프린스터 대학교 강연에서 “칼빈주의”에 대해 강연할 때 칼빈주의 사상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눈에 띄던 것은 ‘칼빈주의와 정치’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영역 주권’ 사상이었다. 카이퍼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영역’ 있는데 그 모든 삶의 영역은 각자 고유의 지배 원리가 있어서 각 영역은 다른 영역에 개입해서 간섭할 수 없고 각자 그 원리에 충실할 때 나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테면 경제 분야에 정치 분야가 일방적으로 자기 시각으로 간섭하면 경제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말이다. 만일 정치가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고 하면 ‘주의’(ism)가 되어 독재체제가 된다고 한다. 반면에 문화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고 들면 문화 독재주의가 형성된다고 한다. 이 모든 영역은 각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자기 발전을 도모한다고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다 관할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영역은 각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전문 학자들은 부단히 연구하며 동시에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 실제 생활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고 정치영역은 이 모든 영역들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사실 서구 기독교 국가의 정치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영역주권 이론’ 또는 ‘분야주권 이론’이라고 하는데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도이에베르트라는 기독교 철학자는 이것을 발전시켜 ‘법 영역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우리의 삶의 분야를 15가지로 나누고 그 중요성에 따라 순서를 정했다. 15가지 중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영역’으로 보고 그 다음을 ‘윤리영역’ 셋째는 ‘법률영역’, 넷째는 ‘심미영역’, 그 다음은 ‘경제영역’ 등등으로 나누어 논했다. 각 영역이 교유의 원리와 법칙이 있지만 모든 영역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영역의 원리를 고려하여 자기 주권을 수행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신앙영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맥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것 같다. 미국의 각 장관들은 수십 명의 싱크 탱크를 두고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장관이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장관을 한번 임명하면 그 분야의 전권을 맡기고 거의 임기를 같이 하는데 그만큼 실수가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교적 인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여 무능한 자기 사람을 중요 자리에 앉히는 풍토가 있는 한, 그 사회는 항상 요동칠 것이다. 지금 대혼란에 빠진 한국사회는 이 시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는 교회 고유의 지배 원리가 있다. 국가가 간섭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돈 많은 장로가 돈으로 좌우지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런 교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것이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인 목사는 교회의 전문가로서 교회를 살피야 하고 이 세상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 대학에도 지배 원리가 있다. 만일 국가 권력이 대학의 원리를 무시하고 지배하려고 시도하면 대학은 공권력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대학이

란 참된 자유 속에서 각 학과 교수들이 자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계속 연구하고 매진하여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진리를 규명하는 사명을 지닌다. 신학교는 신학교의 원리가 지배한다. 대표적인 모 보수교단 정치가들이 지나치게 신학교를 간섭한 나머지 신학교수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풍토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얻지 못해 교권의 눈치만 살피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이들은 영역주권 내지 분야주권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모든 교수들이 자기 전문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인으로 훈련하고 동시에 신학교로서 경건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교회의 경건 전통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우리 학교에 적용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권 영역주권이 학교 주권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여러 자유대학교>



베를린 자유대학교 실험연구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뱃지



벨기 브뤼셀 자유대학교



화란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학교소식>

1. 지난 10월 28일에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세미나가 본교 305호에서 열렸다.

칼빈대학교 유창형 교수(조직신학)가 “존 칼빈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그 다음 안양대학교 김용주 교수가 “마르틴 루터의 칭의론”의 재목으로 발표했다. 이번 에 특이한 것은 재학생외에 외부에서 온 내빈들이 많이 참석하여 경청했다는 사실이다.

2. 지난 10월 15일에는 한영대학교에서 한국개혁신학회가 “이슬람”을 주제로 학회가 개최되었다. 당면한 사안이 매우 중요하여 이해훈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발제하였다. 만일 이슬람의 샤리아법이 실행되도록 국법을 정하게 되면 이들은 이슬람을 믿다가 떠난 자들을 마음대로 살인할 수도 있고 또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어서 사회 윤리가 매우 혼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든 교회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3. 지난 10월 29일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용인 소재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성, 가족, 동성애”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다.

4. 지난 10월 29일 본교 교수들은 본교단 청년 연합 집회에 참석하여 목사가 될 사명자를 발국하고 학교 홍보를 하고 돌아 왔다.

5. 지난 10월 18일 강철 이사장은 본교 직원인 소은영 팀장(6급)과 손계숙 팀장(7급)을 승진 임명장을 수여하고 김창식 임시 직원은 정식 직원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6. 2016년 10월 31일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사업이 허락되었다. ㉠ 고려자 위기상담과 ㉡ 기독교상담과.



시편 72:1~20 주해 :

왕의 길

박영복 교수(구약학)

<주석>

시편 72편은 저자와 관련하여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우리말 성경에 72편 시작할 때, ‘솔로몬의 시’라고 표기되어 있고, 본문 마지막 20절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되어 있다. 즉, 본문의 말씀에는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시를 시작하는 부분에는 모순적으로 ‘솔로몬의 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다윗의 시라고 해야 할까? 필자의 생각엔 ‘다윗의 시’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번역상 시를 시작하는 부분의 ‘솔로몬의 시’는 히브리어 원문 מְלֶכֶת 그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시로 적어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1-2절에서 아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간구를 들어보자.

“1 하나님이며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2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일차적으로 다윗이 바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판단력’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비슷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여(평행법), 그 ‘판단력’이 ‘주의 공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히브리어로 된 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진 후에 어떻게 되길 원하는가? 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겨둔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왕의 통치 방법이 어디로부터 기원하는가를 명백히 밝히는 행위가 된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의 근원,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3절의 표현은 2절의 내용과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왜 ‘산들과 작은 산들’이 평강을 백성에게 가져다줄까? 일단 문자적으로 보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풍요를 가져다가 주는 것밖에 없다. 산들이 풍요로운 곡식과 과실을 맺어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그 산지에서는 백성들이 근원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서 왕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다스림이 백성들에게 자연의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 먼저 4절은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실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그 다스림이 어떻게 백성들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의 결과가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5-7절을 요약하면, 5절, 그런 왕의 다스림 때문에 밤낮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한다. 6절, 그런 왕의 다스림이 비같이 땅에 축축이 적시기 때문에, 7절, 그 땅에 의인이 많아지게 되고, 평강의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5-7절의 결과가 놀라운 것은, 앞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따라가 보면, 왕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땅에 의인이 많아지게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땅의 평강의 풍성함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 이 한 가지 첨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왕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피조세계를 다스리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피조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또한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이 땅에 많게 되면, 자연적으로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땅이 더욱 더 풍성해 지는 것이다. 다윗은 사람의 그런 영향력을 고려하여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의인이 짙게 들어차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풍요롭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공의로운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8절)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전 지구를 그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세상의 모든 왕이 그 왕 앞에 복종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그 왕을 섬길 것이라고 기도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로 짙게 들어차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지상의 모든 땅이 풍성함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응답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다윗의 기도는 세상의 풍요와 결실의 수준에서만 한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12-15절까지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의미에 단어들인 매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2절에 ‘건지며’, 13절에 ‘구원하며’, 14절에 ‘구원하리니’, 15절 ‘생존하여’ 등이 그것이다. 왕을 통하여 공의로움이 베풀어질 때, 세상만 그냥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 표현은 1차적으로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본문에서는 영원성도 나타난다. 17절에서 그 칭송받는 왕의 이름이 영원하다고 한다. 왜일까?

“17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이런 통치를 할 수 있는 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세상의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이나, 위대한 통치자 혹은 지략가들의 지략들, 혹은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의 견해들을 모두 빌려와서, 이 모든 것을 연합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거기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치를 누가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는 이런 통치 원리를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이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18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이 땅에 확실한 성취를 염원하며 아멘을 두 번이나 한다. 다윗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되, 오직 하나님만의 공의로 실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이런 기적이 있게 해달고 하는 것이다. 마치 창세기의 에덴 동산처럼 말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뿐이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을 어렴풋 바라보았지만, 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기만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분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 바로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시다.



<설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짧게 묵상하고자 한다.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공의와 정의는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이다. 다윗의 기도는

이런 원리가 절대불변의 영원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왕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히 칭송을 받는다고 말한다. 달리 말해서, 영원히 칭송을 받을 만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증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조롱하듯이, 모든 불의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잘 견디어 왔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또한 온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나름 노력하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런 악하고 불의가 난무하는 사회에 이제 입성하게 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곧 사회에 진입하게 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공의로워라! 정의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가정에서 가르치고, 세상에 내보내 놓았더니, 우리 사회는 세상의 경쟁이라는 경쟁을 다 가져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들이대고는,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마치 사회에서 낙오자 되게 하고, 세상의 부적응자 취급을 하고, 온갖 흠집과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도대체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세상에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도 답이 없다. 그 답은 오직 성경에 있다. 다윗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며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점은, 이 시가 다윗이 기도했는데 왜 ‘솔로몬의 위한 시’가 되었는가를 잘 설명한다. 기도가 솔로몬을 위한 가르침이고 교훈 이었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통치하게 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본문 말씀처럼 기도한 것이다. 그 결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계시적(啓示的)으로 드러낸 위대한 기도가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우리의 기도가 ‘쓸모없다’, ‘가치없다’, 손가락질 하며 조롱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할 것이 없다. 본문에서 솔로몬을 향한 다윗이 바램의 크기는 실로 어마어마했듯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바램의 크기도 그 못지않게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를 잊고 짊어질 자들이기에...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조롱에 무심하시길 권면한다. 그것에 오히려 대항해서, 다윗처럼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자녀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폭넓고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길 권면한다. 그래서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초석을 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의 세대에는 의인들이 더욱 많아져서 우리의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요

롭고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조직신학적 코멘트>

이동영 교수(조직신학, Dr. theol.)

1. 개혁교회의 예배 속에서 시편의 중요성

역사적 개혁교회의 예배 전통에서 시편 찬송은 특별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이다.

2. 시편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가를 배운다. 즉 우리가 시편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법을 성찰할 때, 기도란 언제나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의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해야만 하는 것이다.

3. 본문 「시편 72:1~20 주해 : 왕의 길」과 관련하여

1) 참다운 지도자상을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이다. 지도자의 권력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의 교부 츠빙글리(U. Zwingli)가 취리히 논쟁서(Zuericher Disputation)에거 언급했던바 지도자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서 행악을 일삼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2)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자!

우리는 본 시편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

도의 통치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사실을 배운다.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말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못하실 영역은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카이퍼는 자신의 ‘영역주권사상’(Sphere Sovereignty)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세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힘써 가르쳐야만 한다.

<신앙시인의 수필>



추분 같은 사람

이경아 박사

우리나라 24절기 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절기가 두 번 있다.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이다. 이중 춘분은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신산스러움에서 벗어날 것을 알리는 절기이기에 반갑고, 추분은 여름의 지겨운 더위와 부산스러움에서 벗어날 것을 알리는 절기이기에 반갑다. 이래저래, 춘분과 추분은 잊혀져가는 우리나라 절기 가운데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더러는 날수를 세며 기다리기도 하는 절기이다. 무시당하지 않는 절기.

두 절기가 다 밤낮의 길이가 같으니 그게 그것 같지만, 나는 춘분보다 추분을 더 좋아한다. 겨울보다는 여름이 민초(民草)들이 겪어내기가 수월하다는 옛말이 있지만, 내가 추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물리적 현상과 생활에 얽힌 현실인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나의 추분 선호성향은 내 사유방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외부 곧 타인에게서 받는 따스함과 부드러움이라기보다는 자신과 마주보는 성찰의 시간이며, 그것은 차가울수록 또 혹독할수록 그리고 쓸쓸할수록 깊어지는 품, 곧 내면의 품격과 관련이 있다. 더구나 하나 또는 둘만 남아 기른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그 필요가 더 절실해 보인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에, 정말 꾸짖어야 할 때마저 침묵으로 얼버무리거나 마냥 좋다는 식의 미소로 꾸지람을 대체하던 그 때 그 사람들 중에 요즘 청소년들의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의 청소년들에 비해 끈기

가 없다. 대답이 없다. 친구가 없다. 창의적이지 않다. 진중하지 못하다. 사려 깊지도 않다. 발끈한다. 폭력성 게임을 좋아한다. 긴 글을 쓰지 않는다. 줄여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말글에 대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신앙의 계보를 잇는 것도, 꿈을 향한 도전의식을 갖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들 중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거나 단속하지 못한다. 어떤 광고 자막처럼, 잠깐 떴던 드라마 대사처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길 좋아한다. 훈계를 싫어한다. 쉽게 포기한다. 좌절한다. 그리고 ‘바닥을 쳤다’고 말한다.



‘바닥을 쳤다’는 말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까지 내려가 발끝이 바닥에 닿았다는 뜻이다. 극한 절망의 다른 표현이다. 그럼에도 이 말은, 그 절망에 상응하는 희망을 내포한다. 마치 수영선수가 갈 데까지 다 가면 발끝으로 벽을 차고 몸을 되돌리는 것과 같이, 바닥까지 내려가 그 밑을 쳤다는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발끝으로 바닥을 치면, 이제는 위로, 위로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곳까지 가지 않는다. 하여 그 지점 ‘바닥’에 당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이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어느 지점에서 주저앉을 뿐이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른다. 겨울의 혹독함을 모른다. 그걸 알면 그리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 가볍게 하루 또 하루를 대하지 못한다. 그 혹독한 추위 앞에서는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상처 받았다고 느끼는 마음 자체가 사치이기 때문이다.

겨울은 그저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살아내야 한다. 살이의 겨울은 늘 그렇다. 그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을 마주 보면서 달리며 추위를 견뎌야 한다. 자신과 마주서서 그 쓸쓸함을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다시 달려야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모두 이런 사람이기를 바란다. 여름을 벗어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볼 줄 아는 사람. 밝음과 어둠의 깊이가 같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싶다.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자신의 안과 밖을, 말과 행동을, 신앙과 신학을 규모 있게 관리하는 사람. 언제나 빛을 향한 행보로 인해 꼭 그만큼의 그림자 또한 지니고 있는 사람. 나 또한 그런 사람이고 싶다. 들을 것은 듣고 말할 것은 말할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선선하고 더러는 따스한 사람. 겨울 앞에서도 다음 가을을 믿으며 의연한 사람. 깊고 높은 사람. 추분 같은 사람.

하나님은 누구신가? (18)

삼위일체론 강의(11)



이동영 교수(Dr. theol.)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의 분리의 문제점

‘내재적 삼위일체’^{immanente Trinität}와 ‘경륜적 삼위일체’^{ökonomische Trinität} 사이를 분리시키는 이 양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이해는 이 세상 속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계시와 구원의 역사 보다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본질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분의 통치를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고전적 견해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의 결함을 노출시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성과 구원역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삼위일체론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행위 내지는 구원사건에 대한 진술 속에서 취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내적 존재의 신비를 설명하는 고도의 사변으로 기울어지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칼 라너의 명제와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토론

칼 라너(Karl Rahner)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자신의 유명한 명제로 요약하였습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며,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이다¹⁾ Die ökonomische Trinität ist die immanente Trinität und umgekehrt.

라너가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 사이의 관계를 상기의 명제로 정의한 이래로, 오늘날 삼위일체 신학에 대한 토론의 한 가운데서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언제나 중요한 논제로 토론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 예를 들면 몰트만^{J. Moltmann}, 판

넬베르크^{W. Pannenberg}, 라쿠나^{C. M. LaCugna}, 보프^{L. Boff} 등은 상기에서 언급한 라너의 명제를 수용하여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를 분리하는 고전적 견해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론을 구원의 역사^{historia salutis}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입장을 수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사이의 분리에 대한 비판

몰트만 같은 이는 ‘내재적 삼위일체’^{Ökonomische Trinität}와 ‘경륜적 삼위일체’^{immanente Trinität}의 ‘분리’^{Trennung} 주장의 배후에는 사물 또는 사건을 ‘이데아’^{Idee}와 ‘현상’^{Erscheinung}으로 이분하는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적 도식이 도사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변이 아니라,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추론된 구원 역사의 요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헬라철학을 따라 하나님의 내적인 존재의 신비에 대한 관념적 사변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를 ‘구분’^{discreti}해야만 하겠지만, 그 양자를 ‘분리’^{separati}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의 일치

하나님의 계시^{Gottes Offenbarung}는 언제나 하나님의 본질^{Gottes Wesen}에 ‘일치’^{Entsprechung}하기에,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본질에 일치한다는 것, 즉 계시와 본질 양자 사이의 ‘일치성의 원리’^{Entsprechungsprinzip}는 몰트만과 판넬베르크 같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창의적인 주장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개혁신학자 에드워드 뵐^{Eduard Böhl},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그리고 독일의 개혁신학자 오토 베버^{Otto Weber}에게서 이미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뵐은 삼위일체의 인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과 관계없이 단지 존재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온당하게 지적했습니다(E. Böhl, *Dogmatik. Darstellung der Christlichen Glaubenslehre auf Reformiert-Kirchlicher Grundlage*, Amsterdam: Verlag von Scheeffer & Co/Leipzig: Rund Giegler/Basel: Felix Schneider, 1887, 82 [권호덕, “콜브르게 학파 에드워드 뵐의 삼위일체 이해”, 조직신학연구, 제 20호, 2014 봄. 여름호, 44를 따라 재인용]). 그래서 베버와 바빙크는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륜적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

작하여 귀납적으로 내재적 삼위일체를 파악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던 것입니다.

(...) 시간 가운데 [성자와 성령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존재 내의 삼위의 내재적 관계에 대한 반영이며, 출생과 내침에 그 근거를 갖는다. (...) 그러므로 교부들은 시간 속에서 인간의 눈에 드러난 삼위들 간의 관계들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들을 도출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정당한 것이다(바빙크, 『개혁 교의학』, 제 2권, 403)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에 일치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본질에 일치하기 때문이다(Otto Weber, *Grundlage der Dogmatik*, I, Neukirchen, 1977, 430).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가 일치한다는 상기의 개혁신학자들의 입장을 견지할 경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고난과 죽음을 파악함에 있어서도 이 일련의 사건들이 내재적 삼위일체와는 무관하게 단지 경륜적 삼위일체의 영역 안에서만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한 라너의 명제, 즉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이며, 내재적 삼위일체는 경륜적 삼위일체이다”를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명제에 의거했을 때 경륜적 삼위일체와 내재적 삼위일체는 '구분'할 수는 있어도 '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너는 자신의 명제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Wesen}과 '계시' ^{Offenbarung} 사이의 '상호작용' ^{Wechselwirkung} 내지는 '일치성' ^{Entsprechung}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주석>



본문개관
개요

골로새서 해석

골로새서 4:1-9절

최흥식 교수(Ph.D., 신약학)
(헛불신학대학원대학교, 재건 측)

본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내용들과 두기고를 천거하는 바울의 추천사를 담고 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락인 1절은 종들에 대한 상전의 태도를 언급한다. 둘째 단락인 2-6절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기도 생활과 외인들에 대한 지혜로운 삶을 기술한다. 셋째 단락인 7-9절은 두기고에 대한 추천사와 오네시모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담고 있다.

종들에 대한 주인의 태도 - 1절

그리스도인 주인들은 불신자 주인들과는 달리 그들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자신들의 종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한 형제이다(골 3:11; 갈 3:28 참조).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지혜로운 삶 - 2-6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결론적 권면을 하고 있다.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수신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자신과 그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영적 잠을 거부해야 한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신자는 불신자들을 대할 때 은혜롭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질문에 기지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는 불신자들의 세속적 삶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을 전도하여 개종시키는 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추천 - 7-9절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보낸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교회들과는 그의 동역자들과 서신들을 통하여 소통하며 교제를 나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자신의 사정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랑스럽고 신실한 형제들이었다.

절별 주해

1절

본 절은 원래 3장 22-25절과 한 단락으로 묶는 것이 자연스럽다.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상전들도 그들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상전들은 자신들의 종들을 올바르게 공평하게 대해 종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 한다. 이 권면은 바울의 동시대의 로마법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사고 팔 수 있었으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었다. 종이 잘못을 저지르면 때릴 수도 있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죽일 수도 있었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주인이 종을 공평하게 대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 물론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주인과 종 사이에 공평함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육신의 주인들은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이다. 종들이 주인을 마치 주님을 성실함으로 섬기듯이 주인들도 하늘에 주인이 계심을 명심하여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상전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종들을 학대하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종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늘에 상전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바울의 이 권면은 중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2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권고한다. “기도를 계속하고”는 기도를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도예 물두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다(살전 5:17 참조). “깨어 있으라”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사탄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는 권고이다. 신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3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바울은 중보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확신하여 여러 번 성도들에게 자신과 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롬 15:30-32, 51; 고후 1:11; 빌 1:19; 살전 5:25; 살후 3:1-2; 엡 6:19-20).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다. “전도의 문”은 원래 “말씀의 문”인데 “말문”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의미한다(빌 1:12-14 참조). 하나님은 선교 사역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행 10 참조). 말씀 전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비밀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 요청을 하였다. 기도 요청의 이유는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 전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고소를 당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빌 1:12-14).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다(딤후 2:9 참조). 핍박과 감옥살이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건 복음전도자였다(행 20:23-24 참조).

4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라고 기도부탁을 한 다음 두 번째 내용의 기도요청을 하는데 첫째 내용과 유사하다. 그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 부탁을 한다. 바울은 감춰진 비밀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드러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는 자신이 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자신이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는 사명으로 이해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행 20:24 참조).



5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해 권면한다. “외인”은 교회 공동체 밖에 존재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외인들이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세상과 비 그리스도인과는 구별된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다. 신자는 세속에 물드는 것을 조심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딜레마를 가진다. 신자들은 지혜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경 말씀을 따라 대해야 한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어 상 “중요한 시간을 사라”를 의미한다. “세월”은 일상적 시간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소중한 시간을 뜻하는데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아끼라”는 소중한 시간을 집중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간에 대해 뭔가를 지불하여 유용하는 것이 신자의 지혜로운 기회활용이다. 신자는 말씀사역을 위해 종말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6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불신자들과 교제 할 때 말을 무미건조하게 하지 말고 운치와 재치 있는 풍미로운 말로 대화하라고 권면한다. 신자들은 불신자들과 구분된 성도 이지만 그들과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대화하며 살아야 한다. 불신자와의 언어생활은 항상 친절과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의 은유는 말에 재치와 기지가 담긴 것을 묘사한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생활모습에 대해 질문을 할 때 관대함으로 재치 있게 처신하면 묻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된다. 신자는 은혜롭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질문에 기지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벧전 3:15 참조).

7절

바울은 그의 편지의 결어 부분에서(4:7-18) 개인적 인사와 문안과 축도를 한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 두기고를 추천하여 골로새 교회로 보낸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여러 교회들을 접촉하고 목양했다. 두기고는 바울의 친밀하고 신뢰받는 동역자 였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드로아로 여행하였고(행 20:4)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전달단에 동참했다. 바울은 그를 골로새와(골 4:8) 에베소로(엡 6:21) 보냈다.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함께 종이 된 자로 소개한다. “형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형성된 공동체 내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초대교회 용어이다(마 5:22-24; 롬 1:13; 7:1; 15:14; 고전 15:18; 빌 3:1). 바울과 두기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통적 신앙을 통해 결속된 영적 가족임을 의미한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믿음직한 일꾼이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하나님과 동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함께 종된 자”로 묘사한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 두기고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소개한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해하며 두기고도 주 안에서 같은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8절

바울은 7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8절에서 두기고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바울은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두기고를 보냈다. 또한 바울은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보낸 것이다. 바울은 그들과 소통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한 가족이 된 그들을 돌보고 위로하기를 원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가서 하지 못할 경우 그의 동역자들과 서신을 통해 그렇게 하였다.

9절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로 보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주인에게 잘못을 하여 로마로 왔고, 바울을 통해 신자가 되어 그들 돕는 신실하고 사랑스런 형제가 되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신자인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두기고를 추천한 내용과 같이 신실하고 사랑스런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몬 10-16).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와 노예가 서로 형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갈 3:28 참조).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 받는 형제로 받아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빌 16). 바울은 다시 한 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자신의 근황을 골로새 교회 신자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주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장석조 교수(Ph.D. 신약학)

명사 ‘복음’(또 유양겔리온, τὸ εὐαγγέλιον)은 사도행전에서 2회 사용된다(행 15:7; 20:24). 이것은 명사 ‘복음’이 같은 저자의 기록인 누가복음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것이나 마태복음(4회), 마가복음(8회)에 여러 번 사용된 것과 비교할 때 특이한 일이다. 저자는 ‘복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복음’의 첫 언급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요약한다. 여기서 복음은 ‘그 말씀’과 ‘믿음’과 ‘이방인들’과 연결된다.

행 15:7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

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먼저 베드로는 복음을 ‘그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한다. ‘복음’과 ‘그 말씀’의 조화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정통적 전승임을 확증시켜 준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제어로 사용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고(눅 4:32; 5:1; 8:11)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 때문이다(행 2:41; 4:4, 31; 6:7; 12:24).

또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복음은 ‘이방인들’과 ‘믿음’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베드로는 자신이 선택받은 목적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을 위한 사도임을 우여곡절 과정을 겪으면서 확실히 알게 되었음을(행 10-11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확실히 알린다. 구원의 조건은 더 이상 모세 율법을 규정되어선 안되고 오직 복음을 믿는 것에 있다는 깨달음이다(행 13:39;).

이와 같이 누가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과 그에 대한 이방인들의 믿음의 반응과 유대인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행 3:25; 9:15; 10:34f; 11:18; 15:17; 22:21; 26:17, 23) 나타난다. 더 나아가 누가의 이방인 구원에 대한 구절은 철저히 구약과 연관되어 있다(눅 2:32-사 42:6; 49:6, 눅 3:6-사 40:5, 행 13:47-사 49:6, 행 15:17-암 9:12, 행 28:25-28-사 6:9-10.20).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는 약속의 성취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유대인 먼저’라는 사고가 등장한다(행 13:46; 참고. 3:25, 26).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도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서 다룬다(벧전 1:12; 4:17).

복음의 둘째 언급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한다.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먼저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하게 연결한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것과 같이 구원의 조건은 더 이상 모세 율법을 규정되어선 안되고 오직 복음을 믿는 것에 있다는 깨달음이다(행 13:39; 16:6-20:38). 누가는 사도행전의 두 대표적인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구원 계획이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조건은 믿음인 것을 명시하는데 명사 ‘복음’을 사용하고 있다.

<선교신학>

군선교에 관한 제반 이해와 ‘Vision 2020’에 관한 신학적 재고



배춘섭교수(Ph.D. 선교신학)

II. 군선교의 이론적 이해(理解)

1. 선교의 정의

선교의 기본적 개념은 인간의 선교활동(missions)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¹⁾로 이해되어야 한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군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주권적 차원의 구원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교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송상민은 선교를 정의하면서 “선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을 목적하며, 그 주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중심 된다”고 주장한다.²⁾ 여기서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사역에 놓여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구원사역을 펼쳐나가신다.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주권적 구원사역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한 지혜, 본래적 신성이라는 신적 속성에 근거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창조, 구속,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사역, 즉 선교에 있어서 감출 수 없는 신적 성품으로서 구원작용을 하는 것이다. 휘체돔(Geog F. Vicedom)은 “하나님의 주권은 특히 세 가지 영역 즉, 창조, 구속, 심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교는 본질상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선교이다”³⁾라고

1) 원래 하나님 선교(Mission Dei)의 의미하는 바는 “선교를 단순히 선교사의 복음전파 운동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역사”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1952년 WCC(세계교회협의회) 윌링겐(Willingen) 대회 이후 현대선교신학은 선교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되 선교의 대상을 세상으로 인식하여 세상에 샬롬(Shalom)을 전하는 것을 선교목적으로 했다. 쉽게 말해, 교회는 선교를 위한 객체이자 도구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구원활동은 단순히 구속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역사에서도 전개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대 선교신학은 개인의 회심이나 교회부흥보다는 ‘증거’, ‘봉사’ 그리고 ‘인간성 회복’에 목적을 둔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의 “하나님 선교”는 현대선교신학과 맥(脈)을 같이 하지 않는다.

2) 송상민, “선교적 교회론을 통한 지역사회 선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4), 14.

3) Geog F. Vicedom, *The Mission of God*, 박근원 역, 「하나님의 선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16.

말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의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행해지는 그 분의 주권적 구속사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속성과 구속적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부터 진행(進行)되는 구원역사인 것이다.⁴⁾ 이런 선교의 원리는 군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군선교의 중요성

현재 군(軍)에서 군종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역자들은 군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군선교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여러 중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정성구 박사는 군선교의 중대성을 시대적 상황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특히 오늘날 신학은 인본주의(Humanism)⁶⁾의 세속주의(Secularism) 그리고 혼합주의(Syncretism)⁷⁾의 영향으로 심하게 오염되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주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복음만이 인생을 살릴 길이기 때문에 복음전도의 황금어장인 군대를 전초기지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대중전도나 학원전도 그리고 산업전도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성장과 전도대안 부재의 시대에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도방법은 군선교 밖에 없음을 한국교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⁸⁾

이처럼 군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엇보다 군선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논의(論議)된다.

첫째, 군선교는 한국교회 성장 정체(停滯)의 탈출구 역

할을 감당한다. 한국갤럽⁹⁾은 2014년에 「한국인의 비교종교 보고서」에서, “일반인의 기독교에 관한 호감도는 계속 저하되고 있고 그 수(數)도 급격히 줄었다”고 발표했다. 2014년 현재 한국의 종교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가 7%로 나타난다. 지난 30년간 종교분포도를 보면, 불교인 비율은 18~24% 사이를 머물고 있는데 반해 개신교인은 1980년대 17%에서 1990년대에는 20%에 달한 이후 점진적으로 정체 및 감소현상을 머물고 있다. 이하의 표는 한국의 종교별 신앙 기간에 관한 30년 동안의 종교인의 변화수치를 반영한다.

◎ 종교별 신앙 기간: 단기(5년 미만) vs. 장기(20년 이상) (%)										
	단기 신앙자(5년 미만)					장기 신앙자(20년 이상)				
	1984	1989	1997	2004	2014	1984	1989	1997	2004	2014
불교인	18	15	10	8	8	40	51	55	55	61
개신교인	25	24	13	11	11	44	36	48	51	64
천주교인	25	30	11	18	18	39	49	42	45	57

질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현재의 종교를 믿는 기간은 지금까지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표1>⁵⁾

위의 표처럼 기독교인의 수는 2004년 이후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단기 신앙인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은 기독교인의 감소현상과 아울러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주의 깊게 분석했다. 종교호감도 분야에서, 한국갤럽은 비종교인에게 “종교를 믿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가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25%가 불교를 꼽았고, 그 다음은 천주교(18%)와 개신교(10%)를 순서대로 답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연령대로 보면, 노령일수록 불교에 많은 호감을 가졌고, 2030 세대는 종교인 비율이 낮음과 동시에 종교에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한국갤럽이 종교인 호감도에 관한 표이다.

◎ 연령별 비종교인의 호감종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없다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2004	2014
19~20세	34	18	11	12	18	17	36	52

9) 한국갤럽은 1974년 6월 17일에 설립한 한국 최초 조사전문기관이다. 2015년 현재 창립 41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은 198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이라는 보고서를 출판 후 1989, 1997, 2004, 2014년에 걸쳐 제5차 비교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난 30년간의 변화와 동향을 파악했다. cf.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25&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2015년 9월 1일)

4) 곽선희, “군선교 신학의 의의,” 「군선교 신학」, 총회군선교부 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부, 1985), 79.
5)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5), 22-23.
6) 인본주의는 모든 인간이 존엄성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인간주의(人間主義)는 기본적으로 “신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신본주의를 정면으로 대항한다. 오히려 “인간이 세계의 주인”임을 강조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회적 사상을 발현한다. 이 용어는 인도주의(人道主義)나 휴머니즘(Humanism)는 등으로도 불린다.
7) 혼합주의(混合主義)란 서로 다른 원리적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혼합 및 절충하거나, 서로 대립되는 것들을 조화시키거나 연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절충주의(eclecticism)이다. 사실 종교적 측면에서 혼합주의는 한 종교가 타 종교와 혼합되어 절충된 또 다른 종교화의 과정을 표현할 때 언급된다. 이런 혼합과정은 양 종교적 사상의 본질의 변화와 타협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혼합주의를 엄히 경고하시며, 유일신앙과 절대적인 거룩함을 요구하셨다(출20:3-5; 레11:45; 수24:14-27).
8) 정성구, “군선교 신학의 정립,” 「21세기 군선교정책 심포지엄」 (서울: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 2000), 12.

30대	37	23	11	7	19	23	33	47
40대	43	30	17	12	17	18	23	40
50대	39	28	11	11	13	17	36	43
60세 이상		31		10		10		48
* 1984~2004년의 50대는 50세 이상을 의미. 2014년부터 50대와 60세 이상을 별도 구분								

<표2>¹⁰⁾

이와 같이 기독교가 성장한계에 부딪힌 이유는 제반적 상황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전도의 정체현상과 더불어 이단의 발흥, 자질(資質)이 부족한 목회자의 다량 배출, 무인가 신학교들의 난립,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¹¹⁾와 같은 세계관 혼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젊은 세대들이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고 심지어는 비호감을 갖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위기상황 가운데 군선교는 정체된 한국교회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군선교는 한국선교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20여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진중세례를 받는다. 연간 1회에 5000~6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세례를 받는 진풍경은 한국의 군부대 외(外)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군대에 소재한 교회는 2년 이상을 머무르는 젊은 장병성도가 거의 없다. 끝없이 입교와 출교가 일어나는 곳이 군부대의 교회인 셈이다. 이런 관점에서, 군선교는 복음전파의 한계가 없고 정체가 일어나지 않는 선교의 교두보(橋頭堡)라 말할 수 있다. 물론 ‘초코파이 신자이니, 형식적 교인이니’라는 비판적 쓴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선교는 정체된 젊은 세대를 복음화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전초기지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 군선교는 국가안보를 준비하는데 있어 최고의 효율적 방법이다. 군대는 어떤 기관보다도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그리고 단결력을 탁월하게 훈련받은 곳이다. 이런 점에서 군선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게 인간의 바른 실존과 가치 및 삶의 사역을 가르칠 기회를 얻는다. 사실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는 완전할 수가

없다. 아무리 완전한 제도가 준비되어도 인간의 죄(罪)로 인해 인간사회의 부패를 경험토록 한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부패는 문화의 모든 하위영역들, 즉 정치와 사회, 예술, 교육 등 삶의 모든 자리에까지 심각한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부패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된 인간이 문화변혁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이 변해야 문화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빠르게 변하는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는 자칫 문화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혼란케 하고,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졌던 윤리적 범주들을 과도하게 파괴할 위험성이 있다. 귀결(歸結)적으로 이는 또 다시 사회혼란과 문화파괴로 연계된다. 김충일 박사는 그의 논문 “군선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설교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세계관 정립에 있어서 군선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¹²⁾



복음은 북한의 주체사상¹³⁾ 극복에도 중요하다. 혹 막연히 북한 공산주의(共產主義)에 관심을 갖은 병사들이 군에 입대 후 정체성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와서 공산주의는 유물론(唯物論)과 무신론(無神論) 사상이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이념임을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국민의 일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하는 당위성과 정체성(正體性)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교회는 복무과정에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영적 훈련장이다.

따라서 군선교는 타락한 가치관과 혼돈된 세계관을 받아 들인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된 삶을 이끄는 사람을 세우는데 주력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하다 할 수 있겠다.

10)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30-31.

11) 다원주의란 특정한 가치나 절대적인 중심 가치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각 자의 가치와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를 신봉하는 것을 말한다. 다원주의는 절대적 가치와 질서 그리고 권위와 객관성을 무시하고 부정한다. 심지어는 전통적이고 절대적 가치와 권위를 파괴하고 해체한다. 이런 다원주의의 발현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사상과 맞물린다. 하지만 다원성(Plurality) 혹은 다원적(Plural)이라는 용어는 다원주의(Pluralism)의 뜻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한 사회에서 다른 여러 종교가 함께 공존해 가는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독교나 타종교들 간의 종교적 가치가 궁극적인 일원적 체제, 즉 공통기반에 뿌리를 둔 상징적 의미가 담겨있다. 따라서 다원주의 안에서 종교 간의 만남은 개종보다는 상호풍요(mutual enrichment)나 상호성숙(mutual maturity), 혹은 상호변혁(mutual transformation)을 목적인다. cf. 한인철, 「종교다원주의의 유형」(서울: 한국기독교 연구서, 2005), 19.

12) 김충일, “군선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설교개발을 위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2011), 25.

13)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극복할 일관된 통일정책이나 대안이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육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진보 문화권력의 위선

이성은 미래한국 객원기자
nomadworker@futurekorea.co.kr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과 없이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

공인으로서 시민적 책임감 없는 행태들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줄 뿐

“양심 있고 똑똑한 자는 좌파가 될 수 없다.” - 레이몽 아롱

최근 두 좌파 인사가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 주인공은 도정일 경희대 명예교수와 연예인 김제동 씨다. 좌익계열 학계의 원로이자 한국 대표 인문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도정일 교수는 최근 학력 위조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그는 1983년 경희대 영문과 교수로 부임해 2006년 2월 정년퇴임했다. 2011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경희대 강단에서만 무려 3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셈이다.

도 교수의 학자 생활 전부를 담고 있는 경희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공식프로필은 최근까지 ‘하와이대학교 영문학 박사’였다.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의 인물DB와 출판물에도 동일한 최종학력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최종학력은 박사가 아니었다. 전공도 영문학이 아닌 미국학이었다. 미국의 학위 확인 기관인 NSC의 확인 결과 도 교수의 석·박사 학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박사 학위는커녕 석사 학위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도록 박사 행세를 한 셈이다.



김제동 씨는 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해 공공의 장소에서 반대하고 나서면서도 스스로 공인임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정일, 박사학위 없이 30년간 박사 행세

도 교수는 이와 같은 의혹 제기가 이뤄지자 자신은 하와이대학교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이수했고, 박사 논문의 최종 통과를 인정받았으나 주석이나 참고문헌 정리 등

의 마무리 작업을 하지 못해 학위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신은 스스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프로필이 박사로 기재되고 전공이 영문학으로 표기된 것은 학교 측의 실수라고 책임을 돌렸다. 학력을 고의적으로 사칭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도 교수의 이러한 변명은 설득력이 부족했다.

논문이 통과된 상황에서 고작 주석과 참고문헌 정리 등의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아 학위를 포기하다시피 했다는 해명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의 프로필이 이곳저곳에서 ‘하와이대학교 영문학 박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몰랐을 리 없는 그가 이를 방관한 것은 사실상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본인이 자신의 프로필을 직접 작성하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정보’와 연합뉴스 한국인물사전(2013)에 각각 1984년 12월 하와이대 박사(영미 문학 비평), 1984년 문학박사로 기재한 것이 드러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도 교수는 이 사실이 드러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것에서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라면서 의도하지 않은 ‘고의성 없는 실수’라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박사’라는 학력을 기재한 흔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채 실수라는 이름의 짹짹한 사과만을 남긴 채 의혹을 덮었다.

한편 연예인 김제동 씨는 지난해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군 간부 행사의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을 향해 ‘아주머니’라는 호칭을 썼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이번 국방위 국감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은 김제동 씨의 해당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 김제동 씨가 영창에 다녀온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하면서 진위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국감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바로 다음 날 성남시 시민참여 예산축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그는 영창 발언에 대해 사과가 아닌 궤변에 가까운 변명과 책임을 떠넘겼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연예인이 공인이냐? 공인은 유명인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공인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잠시 포기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입을 열었다. 자신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웃자고 한 이야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김제동 영창행 발언은 거짓?

과연 김제동은 공인이 아닐까?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10월 10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를 상대로 한 모욕 혐의 재판에서 대법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변희재는 비판에 수반되는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공인의 위치에 있다”고 내린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 변희재 대표는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김제동의 논리대로라면 변희재 대표는 공인이 아니다. 변 대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변 대표를 ‘공인’이라고 표현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인’의 범주는 공무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인지도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김제동 씨는 평소 정치적 발언에 매우 적극적이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피력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할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누구보다도 공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힘쓰는 그가, 열토당토않은 사전 논리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지나친 모순이다.

이어서 김제동 씨는 “북한의 핵실험 주기가 짧아지고 소량화, 경량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막는 것이 국방위의 할 일이다”라며 열을 냈다.

김제동의 이 발언 또한 아이러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드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열띤 반대 주장을 펼쳤다. 성주 주민들을 앞에 놓고, “사드 배치 같은 거 없어도 무기 수입 세계 1위인 우리나라라면 충분히 북한 정도 되는 나라는 막아낼 수 있으니 생업에 종사하고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다”는 궤변을 늘어놓던 것이 바로 그였다.

북한의 미사일을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결사반대하던 그가 영창 발언의 거짓 의혹으로 논란이 되자 누구보다도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양 돌변하더니, 자신의 발언의 진위 여부가 아닌 북핵을 막는 데 신경을 쓰라며 화살을 돌리는 모습은 낮 뜨겁기 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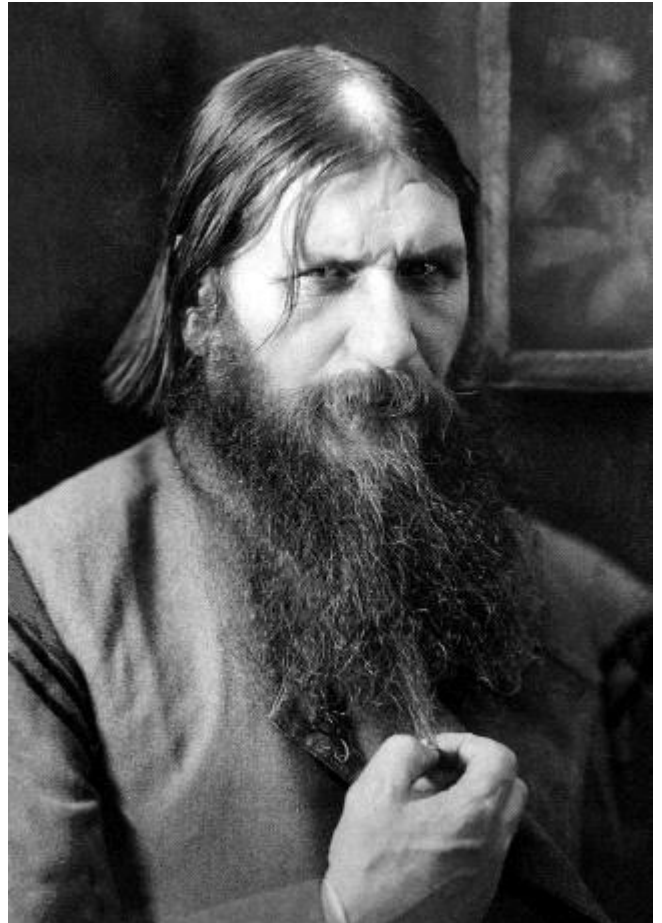
현재 김 씨는 해당 의혹이 지속되자 “제가 근무한 사단에서는 사단 군기교육대를 사단 영창이라고도 하고 영창을 군기 교육대라고도 했다”, “15일 이하 군기교육대나 영창은 원래 기록에 남기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다.

거짓 박사학위로 홍역을 치른 도정일 교수와 불분명한 영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제동 씨. 두 좌파 인사 모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 요소에 책임을 전가시키며 파장을 확대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모습은 두 사람 모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의로움과 진정성을 강조하고 다녔기 때문에 더욱 아이러니다. **미래한국**

<나라 안팎 소식>

고등종교와 이단 내지 사교의 차이는 전자는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계율을 만들고 구원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단들은 교조의 이권을 위해 모든 것이 수렴되는데 있다. 그 결과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적 특성이 드러난다. 처음에는 매우 친절하고 인자하나 권세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금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이 점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러시아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레고리 라스푸틴 그는 신돈과 같은 사람이었다



미 대사관의 보고서 '한국의 라스푸틴 최태민'

2017년도 신·편입생 모집(특별전형·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6년 11월 14일(월)~12월 15일(목)

◆ 전형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특별장학생	신·편입생
모집대상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Th.M.) - 전공: 구약, 신약, 역사, 조직, 실천, 선교	■ 목회학석사(M.Div.) 및 연구과정(M.Div.eq.) ■ 신학석사(Th.M.) - 전공: 구약, 신약, 역사, 조직, 실천, 선교 ■ 석사(M.T.S./M.A.) - 전공: 신학, 선교, 상담, 사회복지 ■ 박사(Ph.D.) - 전공: 구약, 신약, 역사, 조직, 실천, 선교, 상담
선발인원	■ 1년/2년/3년 장학생 0명	①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석사 00명 ② 박사 0명
선발기준	① 서류전형(1차) ② 필기시험(2차): 성경, 논술, 영어 (TOEIC 620점, TOEFL 71점, TEPS 500점 이상 영어 시험 면제) ③ 면접(3차)	①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석사 - 서류전형(1차) - 면접(2차) ② 박사 - 서류전형(1차) - 필기시험(2차, 영어 및 전공) - 면접(3차)

일반전형

◆ 원서접수 : 2017년 1월 5일(목) ~ 2월 10일(금)

◆ 전형일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모집대상 및 인원	■ 목회학석사(M.Div.) 및 연구과정(M.Div.eq.) 00명 ■ 신학석사(Th.M.) - 전공: 구약, 신약, 역사, 조직, 실천, 선교 00명 ■ 석사(M.T.S./M.A.) - 전공: 신학, 선교, 상담, 사회복지 00명 ■ 박사(Ph.D.) - 전공: 구약, 신약, 역사, 조직, 실천, 선교, 상담 0명
선발기준	① 목회학석사, 신학석사, 석사: 서류전형(1차), 면접(2차) ② 박사: 서류전형(1차), 필기시험(2차, 영어 및 전공), 면접(3차)